

## 한국의 표준연력자료 DB생성

안영숙<sup>1</sup>, 김어진<sup>1</sup>, 한보식<sup>2</sup>, 심경진<sup>1</sup>, 이용복<sup>3</sup>, 신종섭<sup>1</sup>

<sup>1</sup>한국천문연구원, <sup>2</sup>영남대학교, <sup>3</sup>서울교육대학교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총괄하는 정확한 연력표가 없었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날짜값을 구하느라 여러번 수고를 하여야 했다. 현재 발간되어 있는 연력표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거나, 우리나라의 사료(史料)를 사용하여도 검증없이 사용함으로써 연력 자료가 일부 틀린값을 지녔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전 시대를 총괄하는 연력표의 편찬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사료(史料)조사와 천문학적인 계산을 통한 검증방법을 이용해 연력표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1998년에 고려시대 연력표를 편찬하였고, 올해에는 조선시대 연력표를 편찬, 발간하였다. 물론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삼국시대의 연력표도 편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두 연력표를 편찬하면서 그동안 사서(史書)에 잘못 기록된 삭일진(朔日辰)들을 정리하여 부록에 게재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쉽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동안 조사, 연구되었던 이 자료들과 함께 향후 2050년까지의 연력표 자료들을 모두 DB화시키고, Internet을 통해 구현함으로서 이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현재까지는 918년-2050년까지의 자료만 db화되어있지만 향후 그 자료 축적기간을 더 넓힐 예정이다.